

나의 길  
나의 멋



임동훈 전수자가 요즘 한 달에 만드는 은장도는 10개 남짓. 여성용 일심도와 남성용 군지도 등 두 가지를 주로 만드는데 10~50만원에 주문 제작하고 있다.

## 아버지의 텅 빈자리 제가 채워나기겠습니다. 제1호 장도장 전수자 임동훈

외형뜨기, 조각과 용접 등 100여 단계의 세부공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 그래서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꼬박 4일이 걸리는 은장도 제작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 있는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1호 장도장 전수자 임동훈 씨를 만났다.

울산시 중구 서동 518번지 슬레이트 지붕과 옛기와로 지어진 재래식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 '금속장' 이란 안내판이 서 있는 허름한 주택이 나온다.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금속장 임원 중 제1호 장도장 전수자 임동훈. 그는 36살의 젊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미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없을 듯한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부친인 임원중 금속장은 지난 4월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급작스레 운명을 달리하여 지금은 임동훈 스스로 부친의 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임동훈 장도장 전수자가 부친으로부터 장도장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전. 아들 삼형제 중 손재주가 뛰어나 부친 곁에서 어깨너머 배운 것이 지금의 장도장 전수자가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었던 부친 임원중 장도장은 1946년 당시 일본을 드나들며 은장도 세공기술을 뽑내던 사촌형 임인출 씨가 울산에서 공장을 차리면서부터 라고 하는데, 부친



은 “농사짓는 일보다 돈벌이가 낫다는 형의 말에 꼬인 것”이라고 했고 그의 부친은 이후 6.25때 2-3년 손을 놓은 걸 빼면 55년 이상 은장도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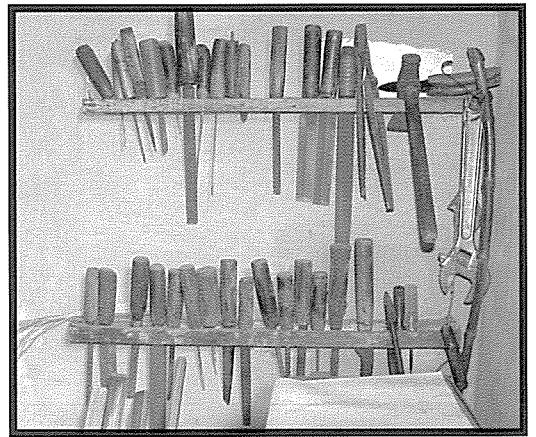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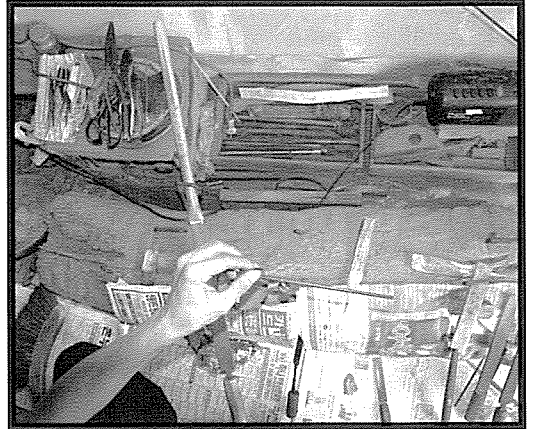
용과 사군자를 12~18cm 크기의 은 칼집에 새겨 넣는 부친의 은장도는 오동상감(은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과 구리의 합금인 오동을 채워 넣는 것) 기술이 빼어나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첫손으로 꼽힐 만큼 일품이셨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 임원중 장도장은 은장도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는데, 이는 은장도를 ‘정절의 상징’으로 여겼던 전통이 사라져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고, 외형뜨기, 조각과 용접 등 100여 단계의 세부공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해 한 자루 완성하는데 하루 10시간 씩 꼬박 4일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동훈 전수자가 요즘 한 달에 만드는 은장도는 10개 남짓. 여성용 일심도와 남성용 군자도 등 두 가지를 주로 만드는데 10~50만원에 주문 제작하고 있다.

요즘 칼 한 자루에 몇 십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 4일 이상 소요되는 수작업으로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싸다고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는 요즘 사람들이 은장도를 안 찾는 이유가 가격 때문만은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그 이유로 한때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를 해보았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결국 은장도는 필요한 사람만이 가치를 안다고 한다.

한번은 한 노인이 10여 년 사용한 장도라며 닳아서 얼마 남지 않은 칼날을 교체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며칠을 걸러 수리를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1년 후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와서 그간 모은 용돈으로 새 은장도를 사가며 너무 행복해 하던 일이 눈에 선하다고.

임동훈 장도장 전수자의 꿈은 박물관을 짓는 것이다. 부친 임원중 장도장의 작품을 중심으로 후손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금 그가 보관중인 부친의 작품은 은장도뿐만 아니라 담뱃대 등 철기제품들이 다수 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부친의 작품만은 보존하겠다는 그의 의지에서 그가 장도장 전수자가 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의지와 달리 현실적인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생활은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다행히 울산시에서는 생활지원금으로 약간의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인 금액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울산시 모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장도 본산지로서의 뿌리를 지켜가고 있는 임동훈. 그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한국의 멋을 지켜나갈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명인 명장이 반드시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아버지를 닮아 있기에…



용과 사군자를 12~18cm 크기의 은 칼집에 새겨 넣는 부친의 은장도는 오동상감(은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속에 금과 구리의 합금인 오동을 채워 넣는 것) 기술이 빼어나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첫손으로 꼽힐 만큼 일품이셨다고 한다.

